

이재명 “중진, 정치신인에 길 터달라”

민주 전현직 의원들과 공천 의견 나눠... 일부 중진급 의원 불출마 결심 추미에 전 장관과 지역구 논의... 현역 컷오프·전략공천 발표 전 긴장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직접 당내 전 현직 의원들을 두루 접촉해 공천 관련 의견을 전달했고 일부 중진급 인사가 불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 및 전략공천 결정 등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교동정리’에 나서면서 향후 공천 국면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최근 인재인 의원(3선·서울 도봉갑)을 만나 공천 관련 문제를 논의했고, 인 의원은 면담 직후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 의원은 민주화 운동 대부로 불리는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상임고문의 부인이다. 지난 2011년 김 전 고문 타계

후 주변 권유로 19대 총선에서 남편 지역구인 서울 도봉갑에 출마해 당선됐고 내리 3선을 지냈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인 의원은 먼저 총선 관련 의견 교환을 위해 이 대표에게 요청한 자리”라면서 “이 대표가 인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봉갑에는 총선 인재 영입 10호인 김남근 변호사 등의 공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는 추미에 전 법무부 장관도 만나 총선 전략과 추 전 장관의 출마 지역구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추 전 장관은 서울 용산과 동작을 등의 전략 공천 가능성이 자전타전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는 재선의 문희경 전 의원 등 총선 출마를 희망한 일부 중진급 인사들에게는 불출마를 권

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1월 27일에 이 대표가 전화를 걸어와 ‘여론조사 지지율이 썩썩’라면서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가 통화한 취지는 선배, 중진급 후보자들에게 ‘새로운 후배들에게 정치입문의 길 터달라’는 당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선(17·18대) 경력의 문 전 의원은 이 대표의 19대 대선 경선 캠프에서 활동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다. 그는 현역 임종성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경기 광주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이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쇄신 의지가 강하고 소위 말하는 ‘올드 보이 정산’에 대한 의지도 있다. 그런 의지가 실행하는 단계, 실행에 옮겨질 걸로 보인다”며 “특히 친명(친이재명) 후보자조차도 그런 정치 쇄신의 의지 대상으로 삼고 소통한 것”이라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 13일 국회에서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권리당원 3161명 사라진 이유는

최고위, 허위 거주지 등 선거권 제한... 경선 판세 영향 촉각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광주지역 권리당원 3000여명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해 경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주당 경선률이 권리당원 50%+시민여론조사 50%인 만큼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의 표심이 당락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권이 제한된 권리당원을 모집했던 예비후보들에게는 경선에서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제219차

최고위원회에서 광주지역 3161명의 선거권을 제한할 것을 의결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당규 제2호 당원 및 당비 규정 제7조 5항에 따라 당원 권리 제한 심의 대상자 1만2681명과 민주당 광주시당 자체 조사 결과 3161명의 선거권을 제한했다.

해당 당규는 ‘당원 명부에 허위로 거주지를 등재했거나 등재된 정보에 대한 당의 사실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선거권이 제한되거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당이 후보 경선에 앞서 당원 선거권을 제한한 사례는 광주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거나,

100장 이내의 입당 원서를 대리 제출한 제출자의 소명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광주시당은 선거권이 제한된 권리당원의 선거구별 집계는 비공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이 한 선거구에 몰려있거나 특정 예비후보가 모집했던 권리당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따라서 그동안 권리당원 모시기에 총력을 쏟았던 예비후보들 가운데 자신이 모집한 권리당원 중 상당수가 이번 선거권 제한에 포함됐을 경우 향후 경선에서 상당한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선거권이 제한된 이들은 입당 원서를 대리 제출한 이도, 가입 당원도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자체 조사라도 경선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결과는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

총선 브리핑

이형석 “도심 철도 지하화 등 인프라 확충”

광주 북구를 예비후보

이형석 국회의원(민주·광주 북구)은 13일 “민생을 세밀하게 살피고 해법은 지역 속원사업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낼 유능한 정치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선언을 열고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유치, 북구 첨단지구 경찰서 신설 등 역대 국회의원들이 약속했지만 실현하지 못했던 지역 속원사업을 대거 해결했다”며 “국회는 물론 중앙 정치권에서 경험을 충분히 쌓은 실력이 검증된 이형석이 적임자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주와 폭정으로 국가 시스템이 일순간에 붕괴했다”며 “민생경제가 파탄지경인데도 윤석열 정권은 오로지 기득권 카르텔 유지와 재벌 감세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광주역-송정역 구간 운양선 도심 철도 지



하화를 추진하고 지역의 민생, 안전, 생활편의 인프라를 확충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북구’를 만들겠다”며 “개장 30년이 지나 시설이 낡은 패밀러랜드는 최첨단 복합 테마파크로 업그레이드시키고 ‘아시아 캐릭터 랜드’를 새롭게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풍성한 문화와 최첨단 산업 중심 도시 북구를 만들겠다”며 인공지능 집적화단지 2단계 추진과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료 특화 산업단지 조성 등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는 “오는 4월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고사시키고 있는 무능하고 오만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검사 독재에 빼앗긴 민주주의의 불을 함께 되찾고 민주당의 심장 광주·호남 정치의 위상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주철현 ‘전남대병원 여수분원 건립’ 공약 발표

여수갑 예비후보

주철현 민주당 여수갑 선거구 예비후보는 ‘전남대병원 여수분원’ 건립 공약을 다시 한번 내걸고 민심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전남도가 30년 숙원사업인 전남지역 국립 의대 유치를 위해 다른 사군과 공동으로 유치 활동을 벌이는 상황에서 표심을 위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을 들어 소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주 예비후보는 “18년 전 여수대와 전남대 통합 당시 약속받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의 여수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역 선출직 공직자의 도리이자 책임”이라며 지난 임기에 이어 추진을 약속했다.

주 후보는 또 정부의 의사 인력 2000명 증원 제



획에 맞춰 ‘전남대병원 여수 분원’ 건립 용역 추진을 통해 여수와 동부권의 공공 의료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여수전남대병원 건립의 최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주 후보는 “2005년 정부가 추진한 공공립대 통합 정책으로 여수는 4년째 국립대가 없어 목포대와 순천대가 벌이는 의대 신설 유치 경쟁에도 뛰어들지 못했다”며 “재선 국회의원이 돼 여수시민과 전남대 여수캠퍼스 동문들의 뜻을 모아 ‘여수전남대병원 건립’에 나설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승남 “쌀 소비 위해 초·중·고 아침밥 사업 추진”

고흥보성장흥강진 예비후보

김승남 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예비후보는 13일 쌀 소비 확산을 위해 초·중·고에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농민들의 표심 잡기에 공을 쏟았다.

김 예비후보는 “대학가에서 추진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초·중·고로 확대할 경우, 국내 1년 쌀 소비량이 10만 t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며 “쌀 값 안정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초·중·고로 확대해 쌀 소비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중·고교생 521만 명에게 최소 수업일수인 190일 동안 아침밥을 제공할 경우 1년 쌀 소비량은 약 9만 8972 t 증가한다는 게 교육부의 ‘2023년 교육기부통계’를 통해 파악한 김 후보 분



석이다.

김 후보는 “농가소득과 직결된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쌀 소비량을 현행보다 10만 t 이상 확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초·중·고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천원의 아침밥 정책을 전국 초·중·고로 확대, 우리나라 쌀 소비량이 10만 t 가까이 증가하게 되면 쌀 공급 과잉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정부가 보유한 쌀 재고량 169만 t 을 소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원룸 리모델링

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